



한국골프 '남녀 제존' 만나다

1일 오후 인천공항 SKY 72 GC 하늬코스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06 SK 텔레콤 오픈 골프 대회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성미(오른쪽)와 최경주가 기자회견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바람 안불면 20언더 가능”

■ 최경주 일문일답

-오늘 연습라운드를 한 소감은.
▲PGA 투어 셀류스톤오픈 이후 클럽을 처음 잡는다. 지금 현재 연습량이 부족하다.
-코스를 평가한다면.
▲가시거리가 생각보다 멀리 보이는 곳도 있고 가까이 보이는 곳도 있어 혼선이 있었다. 코스 답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쇼트게임 감각이 좋은 선수가 유리할 것이다.
-그린은 어떠한가.
▲겉으로 보기에겐 소프트한데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백스핀을 많이 줘야 할 것 같다. 그린은 무난하지만 정확하게 라인을 읽지

않으면 고전할 것. 그린에 끈적한 맛이 있다.
-이번 대회 승부의 관건이라 한다면.
▲골프장의 적을 여부를 떠나 어디에 볼을 갖다 놓느냐가 중요하다. 디보트가 많이 짧은 거리를 남겨 두고 디보트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 나는 양잔디에 적응했기 때문에 감이 좋다.
-근처에 있는 공장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나는 항상 비행기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웃음).
-우승 타수를 전망한다면.
▲15~16언더파로 본다. 바람의 영향이 없다면 20언더파도 가능하다.

“차에서 숙제...머리 아파요”

■ 위성미 일문일답

-당초 18홀을 돌 예정이었다.
▲어제도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9개홀만 돌았다. 코스가 멋있고 재미있었다. 정말 잘치고 싶다.
-그린 상태는.
▲괜찮다. 처음에는 그린 스피드가 빠른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나아지는 것 같다.
-바쁜 일정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가.
▲하나도 안 피곤하다. 잠도 잘자고 아침

에 머리 아팠는데 차 안에서 1시간 숙제를 했기 때문이다. 영어 숙제인데 '위대한 개츠비' 책 읽고 글을 써야 한다. 지금은 괜찮다.
-미국과 한국 코스의 차이점은.
▲미국은 러프가 훨씬 길다.
-최근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는데.
▲진짜 좋았다. 더욱이 (좋아하는 가수)비와 함께 선정돼 영광이다.
-현재 고민이 있다면.
▲연제 숙제 끝낼까 하는 것이다. 숙제하기 싫은데...



■ 김미현 '진클럽' 우승 상보

김미현은 마지막 라운드 초반 7타나 뒤져 있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7번홀까지 5개의 버디를 쓸어담는 사이 2타를 잃어 공동선두를 내주고 말았다.
-생각하기도 싫은 역전패의 악몽이 떠올러지는 순간 김미현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였다.
-앞서 경기를 치르던 오초아가 손쉽게 여겨졌던 9번홀(파5)에서 보기를 범하고 만 것. 다시 1타차 선두로 나선 김미현은 9번홀(파5)과 10번홀(파5)에서 내리 버디를 뽑아내 다시 타수차를 벌려나갔다.
-그러나 웨이 가장 어렵다는 16번홀(파3·193야드)에서 버디를 뽑아내 김미현에 1타차로 따라 붙었고 오초아는 17번홀(파5) 버디로 역시 1타차. 공동2위로 좁혀 들어왔다.

17번홀 버디 성공 사실상 우승 확정

승부가 결정된 것은 17번홀(파5). 김미현은 뒷바라이 부는 가운데 페어웨이 상해 빨랫줄같은 티샷을 날렸고 내리막을 탄 볼은 300야드가 조금 넘어 멈췄다. 홀까지 직선 거리로 190야드를 남기고 7번 우드를 거머쥔 김미현은 핀을 겨냥해 골장 샷을 날렸고 “조금만 더...”라는 외마디 고향을 알아들은 듯 볼은 그린을 예위한 벙커를 살짝 넘겨 그린에 안착했다.
-10m 남짓한 이글 퍼트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무난하게 버디를 잡아낸 김미현은 2위 그룹과 타수차를 2타로 늘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다.
-오초아는 66타. 웨이 67타를 뺀내 공동중우승을 차지했고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4위에 올랐다.
-한회원은 김초롱(22)과 함께 공동5위(4언더파·284타)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고 미야자토는 공동5위로 미끄러졌다.
-LPGA 진출 ‘1세대 동료’ 박세리(29·CJ)는 공동9위에 올랐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4년만에 되찾은 정상 감격의 눈물 ‘주루룩’



■ 김미현 인터뷰

- 챔피언 퍼팅을 마친 뒤에 어떤 느낌이었나.
▲ 눈물이 났다. 1999년 LPGA 투어에 와서 처음 우승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나왔다. 스코어카드를 제출하려 가는데 경기 중반에 웨이 오초아가 추격하고 있을 때 걱정되지 않았다.
▲ 걱정이 많이 됐다. 나는 타수를 잃고 있는데 무섭게 따라오니까 이리다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도 마음을 가라 앉혔는데.
▲기도를 했다. 매홀마다 기도를 했더니 마음도 편해지고 경기도 풀렸다.
-17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내고 우승을 확신했나.
▲ 2타차로 따돌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18번홀은 좀체 버디가 안나오는 홀이라 내가

“매홀마다 기도 마음이 편해져”

18번홀에서 티샷만 페어웨이에 떨어지면 상황이 끝난다고 생각했다. 18번홀에서 티샷이 잘 떨어졌길래 캐디에게 그린에 있는 웨이 오초아의 스코어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버디는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비로소 우승했구나 싶었다.
-우승하고 나서 시집간다고 여러차례 말했는데 이제 결혼하나.
▲ 해야겠다. 이제 우리 나이로 서른살인데 이참에 아버지와 딸을 해서 율해를 넘기지 말아야겠다(웃음).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이유는.
▲ 코스가 너무 길어졌다. 선수들이 모두 장타를 쳐대니까 코스 길이를 마구마구 늘렸는데 나처럼 장타자가 아니면 우승이 어렵다.
-17번홀에서는 300야드가 넘는 장타를 쳤는데.
▲ 다들 내 볼이 아닐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거 내 볼이야”라고 소리쳤다. 290야드쯤 간 것 같다. 나한테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장타였다.

새단장 새로운 서비스정신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습니다!!

호텔식 출저보이게 야외도시락

광주프린스호텔 | 예약 및 안내 062-511-0025